

# 식중독 33% 일교차 큰 가을철 발생

## 식약처, 최근 5년간 312건...야외 도시락 섭취 등 원인 손 씻기·음식 익히기·식재료 세척 등 예방 수칙 당부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2건(6천22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81건(2천48명)으로 여름철(6-8월) 108건(2천387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가을철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8건(환자수 797명)으로

전체 발생(19건) 중 43%를 차지했다. 가을철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정도로 높아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된다.

가을철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도시락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시락 준비와 식재료 섭취 시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둘째, 생고기, 생닭 등을 손질하거나 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안 된다. 채소·과일 등은 물에 담갔다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빨리 사용하거나 차갑게 보관하며, 손질한 육류·어패류는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셋째, 육류, 가공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조리(중

심온도 75℃, 1분 이상)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 후 깨끗이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김밥을 만들 경우에는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다음에 조리하며,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는다. 미지근한 온도(30-40℃)에서 미생물의 증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익힌 재료는 식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나들이할 때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

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

이밖에 야생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먹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잡곡로 관광지나 음식특화거리 등에서 음식점을 방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면 보다 높은 위생수준의 음식

점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을철에 음식물 취급과 보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어 국민들께서는 식중독예방 6대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은 깨끗이 씻기 ▲음식은 익히기 ▲물은 끓이기 ▲칼·도마는 구분 사용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 ▲냉장고에서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김동수기자



지난 25일 광주기독병원에서 최용수 병원장과 김병내 남구구청장, 박은영 남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개소식을 가졌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 광주기독병원,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개소

### 음압시설 병상 운영...의료진 안전 최우선

광주기독병원 내 감염병 전담병원이 들어섰다.

26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중증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29병상을 운영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된 광주기독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동 내 환자차리구역 전체에 음압시설을 갖췄으며, 의료진 출입구와 환자 출입구의 동선 관리가 철저히 분리됐다.

의료진구역에서 환자구역으로 이동

시 전실과 착의실을 거치고, 의료진 출입구로 나올 때는 탈의실·샤워실·착의실·전실실을 거치는 철저한 동선 관리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준비됐다.

이 병동은 광주시 방역당국에 의해 배정된 중증증 환자만이 이송된 구급차로부터 병동 외부의 정해진 입구를 통해 병동에 입실하게 되고 병동 내 다른 동선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으며 모든 입 퇴원 수속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김동수기자

## 김재호 조선대병원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김재호(사진) 조선대병원 뇌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1년 제61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혈관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마판 증후군과 두개내 동맥

류와의 연관성: 뇌 영상을 이용한 118명의 환자에 대한 단일 코호트 후향적 연구' 논문에서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해당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뇌졸중학회지 'Stroke'지 2021년 1월호에 게재될 만큼 연구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마판 증후군 환자에서 뇌동맥류의 유병률이 높고,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학계에서 논란이 있던 뇌동맥류와 마판 증후군과의 연관성 규명을 통해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뇌동맥류의 연구 및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수기자

## 화순전남대병원, 정밀의료 산업화 본격화

### '광주메디헬스산업전' 참가...협력기관 공동관 운영 등 성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첨단정밀의료 산업화지원센터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광주메디헬스산업전'에 참가, 정밀의료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대해 활발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정밀 의료 산업화에 본격 나섰다.

센터는 협력기관인 (재)전남테크노파크와 바이오메디컬 기업인 라메디텍, 엔젠바이오, 케이블루바이오 등과 '정밀의료 공동관'을 운영, 정밀의료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이들 기관·기업은 공동관 운영을 통해 1억5천만원의 정밀의료 제품 구매 계약을 맺고 13건의 상담 및 신제품 개발 협의 등 성과를 거뒀다.

엔젠바이오는 유전체 분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을 바탕으로 BT(생명공

학)·IT(정보통신) 기술을 집약한 혁신적 정밀진단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이다.

이번 산업전에 유방암·난소암·고형암 등의 진단에 사용되는 NGS 검사 패널과 NGS 분석 소프트웨어를 전시했으며, 국내 바이어와 7천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5건의 기술 상담을 진행했다.

케이블루바이오는 고령·재발 난치 혈액암 대상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진단기기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향후 신약 개발과 정밀의료 분자진단 플랫폼 개발 및 동반 진단·정밀의료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혈액암의 정밀진단, 예후 추정, 치료효과 판정, 재발 조기검출 및 타겟치료제 선정을 위한 RN

Aseq NGS 패널(KBBTM-RNAseq NGS-Lekemia-PHB)과 30여건의 신약 후보물질을 선보였다.

국내 병원과 기업, 바이어 상담을 통해 6천700만원의 계약 및 6건 기술상담 성과를 냈다.

라메디텍은 바늘 없이 레이저를 이용해 말초혈액을 채혈하는 장비(HandyRay-Lite, HandyRay-Pro)와 엑시머 광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기기(CAR EYEAM)를 전시해 국내외 병원·기업들로부터 사용 문의·판매권과 관련한 2건의 상담 및 1천여만원 계약을 체결했다.

신명근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장은 "정밀의료는 환자별 맞춤치료를 구현하는 차세대 의료의 주된 패러다임"이라며 "센터는 국내외 메디컬기업·의료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등 정밀의료 산업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 이신석 빛고을전남대병원 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이신석(사진)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최근 대한류마티스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26일 대한류마티스학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그간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을 통해 류마티스학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이 교수를 차기 이사장에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 3대·4대 병원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연구이사·학술이사·기획이사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섬유근통연구회·대한고혈압학회 폐고혈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재)류마티스학연구재단 이사·쇼그렌증후군연구회 회장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의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Rheumatic Disease'와 'Annals of Medicine'의 부편집장을 각각 맡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학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90여회의 국내외 임상시험 연구책임자를 수행했으며, 총 270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의료연구와 학술활동

등을 통해 국내 의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같은 활약에 힘입어 EBS 의학다큐 프로그램인 '명의'에 2014년 9월 '여성을 위협하는 질환, 섬유근통증후군'과 2015년 11월 '질병의 왕, 통풍'으로 두 차례 출연한 바 있다.

한편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1981년에 설립돼 현재 1천여명이 넘는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학회 산하에 11개의 연구회와 4개의 지회가 있는 대규모 학회다.

학회는 또한 류마티스 질환 연구, 교육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해외학회들과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